

주의 공헌 대축일

기도서 P. 237 A해
 제1독서 (이사 60, 1-6)
 제2독서 (에페 3, 2-3. 5-6)
 복음 (마태 2, 1-12)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02935)

□ 한국 천주교회 전국 공동 사목 교서 □

이웃 전 교 의 해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는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전국의 사랑하는 모든 신도들에게 이 사목교서를 보내드립니다.

1984년에 우리는 이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진지 2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세계 교회사상 길이 빛나는 초창기 한국 신도들의 믿음과 죽음을 무릅쓴 활동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 기틀이 다져졌음을 상기하고 감사드리면서 오늘에 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교회생활 전체를 반성하고 재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약동을 위한 발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주교단은 앞으로 4년간,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는 동안 통일된 사목방향을 공동으로 선정하여 전국의 모든 본당과 신자 가정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앞으로 온 겨레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 선교 자세의 반성

한국 주교회의는 1981년을 이웃 전교의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0년 전의 선조들을 본받아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기쁘게 분골쇄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땅에 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동포는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은총과 기쁨을 받아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가 받드는 하느님은 소수 외인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모든 죄인을 어여뻐 여기시고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에베소 2, 18)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웃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지 살펴 봅시다. 우리중 많은 이들이 자기 주위에서 함께 사는 이웃과 주 그리스도께 대해 그분의 기쁜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증거하지 않은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과 같이 살면서 몇년이 지나도록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비롯해서 같은 직장, 같은 학교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친척, 친지들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는 우리 자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200년전 우리 선조들에게는 복음의 횃불을 받은 동포들에게 비추려는 불타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이 정열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의 정열은 그들 나름대로 당시의 상황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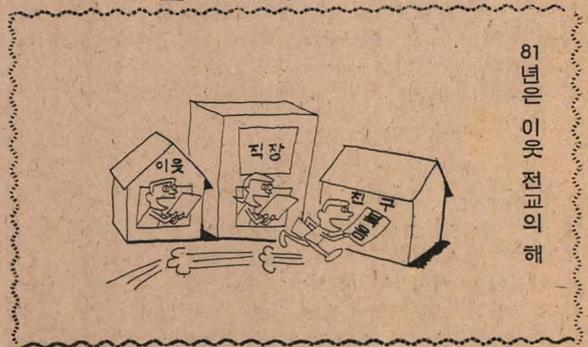
매료되어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영혼의 격동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리 공론에만 치우쳐 당쟁을 초래하며 신분의 차를 고집하여 사회 전체를 고인 물처럼 부패케한 당시의 사조와 전통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진실로 새로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안에 다시 나므로(로마 6, 5) 우주를 주재하시는 한분이신 하느님 아래 모든 인간이 같은 형제이고 남인도 복인도 없으며, 양반도 상인도 없음을 기쁘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에베소 2, 19). 파벌과 신분의 차를 넘어서서 한분이신 하느님을 예배하고 서로 일치하여 한 가족이 된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실제로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조들과 같이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날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어떠한 각도에서 기쁜 소식일 수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열렬히 전할 힘이 솟아날 것이고, 이웃 역시 우리와 함께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오늘날 우리 동포 대다수의 염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고대하는 해방은 실제로 어떠한 곳에 있는가를 알고 함께 느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염원속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용솟음치게 하는 메시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2면에 계속>

숲 정이 산책



81년은 이웃 전교의 해

<1면에서 계속>

단숨에 이루어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주어지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석과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보이는 열매를 맺도록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복음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상론의 탈을 벗고 이 민족 전체의 삶에 구체적인 구원을 제시할 수 있는 기쁜 소식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2. 계획적인 선교활동의 전개

이렇게 선교자세를 반성하고 분석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획성 있고 조직적인 선교활동에 직접 과감하게 투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회생과 봉사로서 이웃에게 “가서 선포하라”(루카 10, 9) 하신 그리스도의 명을 실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구와 본당뿐 아니라, 모든 가정과 신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1981년 이웃 선교의 해를 위한 선교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까. 즉 모든 신자는 나름대로 자신이 선교할 대상인물, 선교방법과 시기를 설정하고 이를 구역 모임을 통해 발표하며 다른 신자와 회장들의 지도와 의견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본당이나 기관은 신심단체를 중심으로 하거나 혹은 구역, 공소를 중심으로 선교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고, 교구와 교구 차원의 단체 및 기관은 특정 지역이나 직장을 대상으로 선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힘껏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수립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교구, 본당, 구역, 공소는 각각 월별로 또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선교활동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격려하고 고무하여 모든 난관속에서도 용기와 기쁨을 느끼며 이 나라의 온 겨레가 한분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3. 기도를 통한 선교활동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안에 생활할 때 이웃에게 기쁨의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매일 이웃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 우리 선교활동도 이웃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직접 선교활동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도만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화 메세사 성녀처럼 기도를 통해서 직접 선교에 임하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4. 생활을 통한 복음선교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복음적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활속의 증거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안에서 현세적 가치를 초월하는 폭넓은 시야로 묵묵히 행동하여 나갈 때, 복음은 그들의 가슴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웃과 함께 살며 어떠한 이해타산도 떠나 순수하게 그들의 인간적인 기쁨과 고통을 나누

는 진정한 동료가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없는 증거는 기쁜 소식을 힘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21항):

5. 선교의 구체적인 행동학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 극변까지 가서 모든 이를 만민체자로 만들라”(마태오 28장 19절)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선교에 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 존재이유임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리지식이나 언변의 모자람을 내세우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사명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교리지식이나 언변일지라도 스스로가 믿고 깨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단숨에 용기있게 선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이웃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어떤이들은 시간에 쫓기어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 자체를 주시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위탁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할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일진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가정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매일의 생활에서 흘러 보내는 수많은 시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헌하는 짧은 시간을 통해 오히려 기록하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도들은 매일 매일을 선교활동에 힘쓰는 성직자, 수도자, 전교회장들과 군중사제나 특수 사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제들의 활동을 물질양면으로 지원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뒷받침이 있어야만 그들은 오로지 선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한 선교활동에 필요한 모든 교재와 자료가 알차게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물질적 후원은 일상생활의 자그마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 땅에 진리의 씨를 뿌린 순교선열들의 후예로서 이 씨를 가꾸고 키워나갈 각별한 사명과 의무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온갖 박해에 부딪치며 선조들이 보여주시던 정열과 투지를 본받아 우리 영혼에 다시금 교동치게 하는 것이 200주년이 지닌 의미일 것이며, 오늘에 사는 우리의 보람일 것입니다.

우리 순교복자들의 전구하심으로 모든 신자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80년 11월 추계 총회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이스라엘 잉어 · 토끼탕 · 산두부카레 : 전문



- 아침식사 : 해 장 국 (콩나물국밥)
- 교구 특별 환영

한바탕 회관

대표 최 소피아
경전라사 사거리
☎ 6066

□ 제14차 세계 평화의 날 □

「평화를 위하여 자유(自由)를 존중하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한 국가 내의 정치적 차원에 있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할 때, 과연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모든 권력이 특정 사회계층이나 인종 혹은 집단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가를 대변하는 한 정당의 이익과 공동선(共同善)이 뒤바뀔 때, 평화의 토대인 참다운 자유는 없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인격과 똑같은 것”이라고 천명한 교황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창세기 1, 27)에 인간과 자유는 불가분의 것이며, 어떠한 외적인 힘이나 강제로도 그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에 의하여 쟁취(爭取)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병행”한다고 하며 책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끝으로 “자유는 인간과 국가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라고 결론지은 교황은, “평화와 마찬가지로 자유는, 인간이 그 온전한 인간성을 함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노력”이라고 촉구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교구는 평화의 날을 맞아 예년과 같이 평일 주치의 신년 교례회를 갖는 자리에서 「평화를 위한 자유 존중」을 다짐했다. 교례회는 주교님으로부터 교황 메시지를 골자로 하는 당부말씀을 듣고, 지난해의 유공 평신도로 선교부문에 공로가 큰 석종훈(합영)·구제현(둔율동)씨와 여산 성지개발을 위해 공로가 큰 이강우(여산)씨를 각각 포창했다.

꾸르실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단기(3박 4일) 훈련 과정인 꾸르실료가 1월 중에도 두 번이나 있다. 그간 910여명의 꾸르실리스트를 배출해낸 꾸르실로 운동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여성 9차(1월 6~9일)와 남성 14차(1월 12~15일) 꾸르실료를 수강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알찬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내야 할 빨랑카(영적예물과 물질예물)는 각각 1월 8일과 14일 안으로 가톨릭 센터 내에 있는 꾸르실로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특히 선배 꾸르실리스트들은 개회식과 폐회식의 참여는 물론, 지난 꾸르실로 기간중의 은총을 감사하는 빨랑카 성원에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요심이 (387) 김병오



□정확 미용학원 학생모집□

최윤경 미장원

최윤경 미용실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 역전 앞
최 윤 경(유리안나)
전화 ②8653

격조높은 분위기



아늑한

Restaurant

大 關 대궐 예약전화 ②5011

전신전화국 앞 임금님다방 2층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괄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협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차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당)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신장 개업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저거)

전주 남문옆(대지여관 입구)

전화 ②4989(사구팔구) ②4988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 매립질 및 성탄절 꽃꽂이 촛대 있음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 2628

범 락도(떡배)·이 마리아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 산·부 기·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계읍 요촌리 156-15
(교속버스터미널 앞)

판인 제 일 경 리 학 원

원장 김유근(요한) ② 2953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약사회 정기총회 겸 목사회...1월 10일(토)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에서
※ 가톨릭 약사회원들의 빠진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꾸르실로 성공을 위한 격려 참석과 빨랑까 부탁드립니다
여성 제 9차 개회식(6일<화> 오후 6시), 마냐니따(9일<금> 4시 30분), 폐회식(9일<금> 6시 30분)
남성 제14차 개회식(12일<월> 오후 6시), 마냐니따(15일<목> 4시30), 폐회식(12일<목> 6시 30분)
 3. 농민회 부녀자 초청 교육 안내...1월 16일(금) 오후 1시~18일 정오까지, 가톨릭센터
대상-농촌부녀자, 참가비-2,500원, 인원-50명(선착순)
※ 농촌 부녀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각 본당에서는 밀린 숲정이 대금을 정산해 주시고 신년도부터는 새마음으로 출발합시다...보광출판사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별
보좌 신부 김희영
사도 회장 김희영

1. 프란치스코 3회 : 오후 2시, 강당
2.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 8일 오전 10시 30분
3. 성심부녀회 월례회 : 9일 어머니미사 후
4. 특별강연 : 저녁미사 후, 강사-엄신부
제목-유대 가정·교육의 비결
5. 사도회 월례회 : 8일 오후 7시
6. 인성회 : 14일 오후 7시
7. 예비자교리 시작 : 1월 18일부터
8. 교무금 자진신입 : 오늘까지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김한형

1. 상임위원회 : 공식미사 후
2. 중·고생 등산대회 : 8일(목)
집결-구어(모악산 행)
3. 반장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심부녀회 : 10일(토) 오후 2시
5. 꾸르실로 교육 : 신청을 바랍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특서-강남준·조동근, 신자들의 기도-한형수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나박
보좌 신부 박정훈
사도 회장 김나박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베소라 성서강의 : 매주(화) 저녁 7시30분부터
3.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부터
4. 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제13차 성령세미나 개최 : 19일부터~24일까지
6. 은혜의 밤 : 1월 30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성서읽기 : 지금까지, 구약 1회 신약 2회를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1월 4일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자모후원회 : 1월 6일
3. 청년회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4. 숲정이 유치원 원아모집 합니다
5. 신협이사회 : 1월 11일 공식미사 후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1. 8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당신부-서석기 신부
보좌신부-조정오 요셉

2. 81년은 이웃 전교의 해입니다
많은 분이 이웃 전교활동에 힘써시다
3. 81년 신년 맞이하여 기도와 복음생활로 심신을 강화합시다
4. 81년은 봉헌정신을 함양합시다
5. 미수된 봉헌금은 오늘까지 꼭 완납바랍니다
6. 숲정이성당 신축금은 언제 내시려는지요
속히 사무실로 납부바랍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기석
보좌 신부 유영준
사도 회장 유영준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9시미사 후
- 지난해 봉헌금 : 406,62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밤 7시미사 후
2. 꾸리아 회합 : 다음주 오후 1시 30분
3. 신년도는 전교의 해입니다
각 가정에 적어도 1인은 레지오 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4. 81년도 교무금 신임해 주십시오
5. 80년도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을 바랍니다
해는 지나갔습니다
6. 한주일 동안의 감사의 표시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주일봉헌금을 정성껏 봉헌하여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범조
보좌 신부 영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복자부녀회 월례회 : 1월 5일(월) 어머니미사 후
3. 외인을 천주교로 인도하는 서약서
이 주간 내에 꼭 내주세요